금호산업 워크아웃에도 올 수주 1조5천억

광주 우산동 재개발·인천 신항 가스공사 등

공공공사도 7000억…경영 정상화 '청신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앞둔 금호산업이 최근 잇따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경영 정상화의 날개를 달았다.

금호산업은 올해 3분기까지 신규 수주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공공공사 수주액도 7000억원을 기록, 업계 4위를 달성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7월 2092억원에 이르는 광주시 북구 우산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낸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인천 신항 가스공사와, 하남 미사 25블록 19공구 아파트 사업 등을 수주했다.

광주 우산구역은 2500여 세대의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수주금액이 2092억원에 달한다. 또 인천생산기지 저장 탱크는 수주금액이 2197억원 규모로, 인천신항 가스공사 인천기지 내 20만㎘급 가스저장탱크 3기를 시공하는 대형 플랜트 공사다. 하남 미사 25블럭 19공구는 688세대, 수주금액 109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이러한 성과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주역량과 기술력이 한 단계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호산업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연달아 성공하면서 기세를 몰아 워크아웃 기간 중 사상 최대의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이후 현재 17위인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앞두고 신규수주가 증가하면서 경영실적이 뚜렷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연말까지 신규수주 2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민자사업, 해외사업 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삼구회장 부자, 금호타이어·산업주식 1541억 전량 처분키로

금호산업 인수자금 조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지분을 전량 처분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 부자 보유 금호산업 지분 345만6179주(지분율 9.93%)와 박 회장 부자 및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보유 금호타이어 지분 1286만7736주(8.14%)가 이날 정규시장 마감 이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물로 나왔다.

박 회장 부자는 매각주간사 NH투자증권을 통해 해당 지분에 대한 투자 수요를 조사 중이며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주당 매각가는 각각 이날 종가인 1만7400원과 7300원이다.

매각대금 규모는 각각 금호산업 601억원, 금호타이어 940억원으로 총 1541억원에 달한다.

이번 블록딜이 성공할 경우 박 회장은 그룹 재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박 회장 부자는 이번 지분 매각 대금으로 금호산업의 사실상 지주회사가 될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소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지난달 24일 금호산업 주채권은행 KDB산업은행과 채권단 보유 지분 50%+1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은 7228억원이다.

박 회장은 이번 블록딜 자금과 투자자 유치를 통해 4200억원가량을 모집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금융권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권동칠 트렉스타 대표 IFC 개최국 의장 활동

11월 5~7일

부산 국제신발컨퍼런스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대표 권동칠)는 26일 "오는 11월 5일~7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 34회 국제신발컨퍼런스(International Footwear Conference : IFC)에서 한국신발협회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권동칠〈사진〉 트렉스타 대표가 개최국 의장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신발컨퍼런스는 부산 BEXCO에서 진행되는 국제신발전시회(BISS) 기간 동안 열리며, 총 12개 회원국 멤버와 미국, 유럽 등의 옵저버 국가의 신발산업 기관 멤버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신발산업의 국제분업생산체제에 따른 회원국 간의 글로벌 협력 방안 마련 ▲IFC컨퍼런스를 통한 보다 정확한 글로벌 신발산업 정보 확보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진행된다.

또 참가국별 신발 전시, 각국 신발 산업 동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국들은 부산국제신발전시관 및 부산의 신발기업체도 방문하게 된다.

권동칠 트렉스타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한국 신발산업의 글로벌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신발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신발컨퍼런스는 1971부터 국제신발협회연맹(CIFA)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며 한국, 중국, 인도, 홍콩, 일본 등 세계신발 생산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세계 12개국이 회원이다.

국제신발컨퍼런스는 매년 12개 가입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며, 한국은 지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개최국이 됐다. 권동칠 대표가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개최국의 의장으로서 1년 간 활동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 쌀 170만t 수매

쌀값 안정위해 사상 최대규모…국내 유통량 53%

농협중앙회는 27일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쌀 170만t 안팎을 수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협 쌀 수매물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국내 쌀 유통량의 53%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165만t을 사들였다. 또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이고자 정부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절(DSC)에 벼 매입자금으로 1000억원씩 총 2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협 양곡창고 3000여개소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도 약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색, 석면지붕 철거 등 시설 현대화로 쌀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은행 'KJB주거래통장' 출시

카드 사용시 수수료 혜택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맞아 광주은행 통장 하나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이용 시 다양한 수수료면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KJB주거래통장'을 2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이달 30일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수료 면제 기준 및 혜택이 기존 상품보다 확대 돼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을 거래하던 고객들도 손쉽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선 매월 신용(체크)카드를 20만원 이상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실적이 3건 이상만 되면, 광주은행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최재호기자 lio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4.65 (-3.43) ▼ 금리 (국고채 3년) 1.63% (-0.02)

▼ 코스닥 688.32 (-2.41) ▼ 환율 (USD) 1131.00원 (-2.80)

'베아트리체'로 우아한 티타임

행남자기, 티웨어 세트 출시…디저트 시장 공략 강화

'생활자기 명가' 행남자기가 최근 디저트 시장을 공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 1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27일 주식이 급등했다.

행남자기는 최근 커피, 티, 다과세트 등의 제품 수를 늘리고 티포원, 티백 트레이 등 새로운 구성을 더한 제품을 선보였다.

현재까지 행남자기가 선보인 커피, 티 관련 제품은 약 100여 종에 이른다.

국내 디저트 시장은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으로,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2배 성장한 약 8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남자기가 이번에 선보이는 '베아트리체' 티웨어는 ▲베아트리체 커피세트 ▲베아트리체 티포원 ▲베아트리체 티백 트레이 3종이다. 간단한 티타임부터 완성도 높은 상차림까지 가능한 풀세트 제품이다.

티포트가 찻잔 속으로 들어가 보관이 용이한 '티포원', 우려낸 티백을 놓아두는 '티백 트레이' 등 디저트 상차림에 특화된 구성품을 추가해 기존의 커피세트나 다과세트와의 차별성을 갖췄다.

또 순백의 본차이나 도자기 식기에 우아한 장미꽃 패턴을 더해,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던 티웨어 특유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했다.

'베아트리체 커피세트'는 여성스러운 붉은 장미 패턴에 화려한 골드장식을 더해 고급스러움을 살린 커피잔과 잔 받침을 포함한 2인용 4피스(pcs) 구성이다.

'베아트리체' 티웨어 3종은 행남자기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행남몰, 백화점 행남자기 입점 매장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베아트리체 커피세트는 8만7000원, 베아트리체 티포원은 9만7000원, 베아트리체 티백 트레이는 1만5000원이다.

한편 행남자기 주식은 27일 한 때 8050원까지 치솟으며 상한가(8200원)를 목전에 두는 등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남자기 주가는 7500원을 기록, 전날보다 1190원(+18.86%)이 올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